

『뽀라마나삼웃짜야(브릿띠)』 1.21-24에서 디그나가의 바이쉐시까 지각론 비판

박대용(동광)
동국대 불교학과 강사
yamadeva@hanmail.net

- I. 들어가는 말
- II. 바이쉐시까 학파의 지각론 이해
- III. PS(V) 1.21-24에서 디그나가의 바이쉐시까 비판
- IV. 나오는 말

요약문

이 논문의 목적은 『뽀라마나삼웃짜야(브릿띠)』(*Pramāṇasamuccaya(vṛtti)*) [集量論(註), 이하 PS(V)] 제1 「현량장」 21-24계승과 자주에 나타난 디그나가(Dignāga [陳那], ca.480-540)의 바이쉐시까(Vaiśeṣika, 勝論學派)의 지각 이론에 대한 비판을 검토하기 위함이다. 주지하다시피 디그나가는 당시 타 학파 논사들과 격렬한 논쟁을 펼친 결과 ‘토론의 황소’(tarka puṅgava)라 불리게 되었다. 디그나가는 PS(V) 1장 전반부에서 지각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소개한 후, 그 후반부에서 곧바로 그와 동시대 인도의 타 학파들의 견해들을 차례대로 논박했다. 에른스트 슈타인켈너(2005)에 의해 새롭게 복원된 산스끄리뜨 교정본 PS(V) 1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PS(V) 1.1 - 1.12: 디그나가 자신의 지각론
- PS(V) 1.13-1.16: 『논궤』의 지각 정의 비판
- PS(V) 1.17-1.20: 니야야 학파의 지각론 비판

- PS(V) 1.21-1.24 : 바이쉐시카 학파의 지각론 비판
- PS(V) 1.25-1.33 : 상카 학파의 지각론 비판
- PS(V) 1.34-1.44 : 미망사 학파의 지각론 비판

이 PS(V) 1장은 총 44개 계송과 자주로 구성되어 있고, 이 가운데 PS(V) 1.21-24는 바이쉐시카(Vaiśeṣika)학파[勝論學派]의 지각론, 특히 『바이쉐시카수뜨라』(이하 VS)에 나타난 VS 3.1.15의 지각 정의와 VS의 다른 수뜨라(sūtra)들과의 상충된 모순을 지적함으로써 결론적으로 이들의 주장은 궤변론자들(kutārkika)의 어리석은 개념(abhimāna)에 지나지 않는다고 힐난하는 것으로 매듭짓는다. 이에 본 연구는 디그나가가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바이쉐시카의 VS에 나타난 지각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선행 검토하고, 이어서 PS(V) 범어 복원본을 바탕으로 그의 바이쉐시카 지각론 비판을 꼼꼼히 살펴보고자 한다.

주제어

디그나가, 바이쉐시카, 『쁘라마나삼웃짜야(브릿띠)』, 『바이쉐시카수뜨라』, viśayālocanamātra, 지각(pratyakṣa), 내속(samavāya)

I. 들어가는 말

이 논문의 목적은 불교 인식논리학의 창시자인 디그나가(Dignāga, ca.480-540)의 『쁘라마나삼웃짜야(브릿띠)』(*Pramāṇasamuccaya*(*vr̥tti*), 이하 PS(V)) 제1 「현량장」(現量章)에 나타난 바이쉐시카(Vaiśeṣika)의 지각 이론에 대한 비판을 검토하기 위함이다. 주지하다시피 디그나가는 당시 타 학파 논사들과 격렬한 논쟁을 펼쳤고, 이로 인해 ‘토론의 황소’(tarka puṅgava)라고 불리게 되었다. 그는 말년에 자신이 쓴 이전의 방대한 논서(śāstra)들을 하나로 요약한 PS(V)를 저술했다. 이 PS(V)는 총 6장¹⁾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가운데 제1장은 총 44개 계송과 그 자주로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다.²⁾

1) 1장 현량, 2장 자비량, 3장 타비량, 4장 유례-사유례, 5. 아포하, 6. 오난(誤難).

2) 참조. Steinkellner, E. *Dignāga's Pramāṇasamuccaya, Chapter 1: A hypothetical reconstruction of the Sanskrit text with the help of the two Tibetan translations on the basis of the hitherto known Sanskrit*

- PS(V) 1.1 - 1.12 : 디그나가 자신의 지각론
- PS(V) 1.13-1.16 : 『논궤』(論軌, *Vādaividhi*)의 지각 정의 비판
- PS(V) 1.17-1.20 : 니야야(Nyāya) 학파의 지각론 비판
- PS(V) 1.21-1.24 : 바이쉐시까(Vaiśeṣika) 학파의 지각론 비판
- PS(V) 1.25-1.33 : 상카(Sāṃkya) 학파의 지각론 비판
- PS(V) 1.34-1.44 : 미망사(Mīmāṃsaka)의 지각론 비판

디그나가는 이상의 PS(V) 1장 13계송 이후부터, 당시 불교와 극렬한 논쟁을 펼쳤던 고전인도 타 학파들의 지각 이론들을 차례차례 논파(論破)했고,³⁾ 특히 PS(V) 1.21-24 계송과 주에서 바이쉐시까 학파의 지각론과 관련해 이 학파의 창시자인 까나다(Kaṇāda, ca.50-150)의 『바이쉐시까수트라』(*Vaiśeṣikasūtra*, 이하 VS)에 나타난 VS 3.1.13의 지각 정의와 VS의 기타 수트라(*sūtra*)들과의 내용 상 상충점들을 통렬히 지적하고 비판한다.

선행 연구로는 핫토리 마사아키(服部正明)가 범본 단편과 티벳역을 중심으로 디그나가의 PS(V) 「현량장」 전모를 소개한 *Dignāga, On Perception*⁴⁾의 본문 42-51쪽과 미주 134-147쪽에 해당 내용이 있고, 불교인식논리학의 종합해설서인 『講座 仏教思想 第二卷 認識論 論理學』⁵⁾ 116-130쪽에 디그나가의 바이쉐시까 비판을 설명하고 있고, 비말 마티랄(Bimal K. Matilal) 역시 디그나가와 고전인도 타 학파와의 교섭관계를 폭넓게 해설한 여러 단행본⁶⁾과 유고작⁷⁾이 있으며,

fragments and the linguistic materials gained from Jinendrabuddhi's Ṭikā. 2005. Published online (http://ikga.oeaw.ac.at/Mat/dignaga_PS_1.pdf).

- 3) 디그나가의 이후 곧바로 니야야 학파의 우도따까라(Uddyotakāra, ca.550-610), 바이쉐시까 학파의 뿌라샤스따빠다(Praśastapāda, ca.550-600), 그리고 미망사 학파의 꾸마릴라(Kumārila, ca.590-650) 등에 의해서 반론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한 언급은 차후 연구 과제로 남겨두기로 하자.
- 4) Hattori, M. *Dignāga on Perception, being the Pratyakṣapariccheda of Dignāga's Pramāṇasamucchaya form the Sanskrit fragments and the Tibetan version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8).
- 5) 服部正明, 「第三章 中期大乘仏教の認識論」, 『講座 仏教思想 第二卷 認識論 論理學』, 三枝充憲 編(東京: 理想社, 1974).
- 6) Matilal, K. B. *Logic, Language and Reality: An Introduction to Indian Philosophical Studies*, (Delhi: Motilal Banarsidass, 1985); *PERCEPTION: An Essay on Classical Indian Theories of Knowled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6).
- 7) Matilal, K. B. *The Character of Logic in India*. ed. by J. Ganeri & H. Tiwari, (NY: SUNY, 1998); *The*

그리고 바이췌시까 사상 전반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한 빌헬름 할파스(Wilhelm Halbfass)의 두 권의 단행본⁸⁾과 하루나가 아이작슨(Harunaga Isaacson)의 박사 학위논문⁹⁾이 주목할 만 하고, 특히 국내논문으로 바이췌시까의 범주론을 체계적으로 소개한 이지수의 「쉬와디띠야의 7범주론」¹⁰⁾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필자가 본 논문에서 연구의 저본으로 삼은 것은 PS(V) 1 *Dignāga's Pramānasamuccaya(vṛtti)*. P.5072, Ce 93b4-109a1¹¹⁾과 2005년 에른스트 슈타인켈너(Ernst Steinkellner)의 산스끄리트 복원본¹²⁾ 그리고 아이작슨의 학위논문에서 실린 VS 교정본이며, 각주의 보충 설명으로 핫토리(1968)의 미주(尾註) 내용을 참고로 하였음을 밝힌다.

II. 바이췌시까 학파의 지각론 이해

바이췌시까 학파는 우리의 경험 대상들을 ‘범주’(範疇, *Padārtha*)¹³⁾로서 체계화하고 있다.¹⁴⁾ 『바이췌시까수뜨라』(*Vaiśeṣikasūtra*, 이하 VS)에서 9가지 실체

Word and The World: India's Contribution to the Study of Langua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Mind, Language and World*. ed. by J. Ganeri,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Epistemology, Logic and Grammar in Indian Philosophical Analysis*. ed. by J. Ganeri,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 8) Halbfass, W. *Tradition and Reflection: Explorations in Indian Thought*, (NY: SUNY, 1991); *On Being and What There Is: Classical Vaiśeṣika and the History of Indian Ontology*, (NY: SUNY, 1992).
- 9) Isaacson, H. *Materials for the Study of the Vaiśeṣika system*. (Ph.D. Thesis, University of Leiden, 1995).
- 10) 이지수, 「쉬와디띠야(Śivādītya)의 7범주론(Saptapadārthī)」, 『인도철학』 4집(서울: 인도철학회, 1994).
- 11) 티벳역 교정본에 대해서 Hattori(1968), pp.174-237를 참조하라.
- 12) 각주 2와 동일.
- 13) ‘padārtha’는 격한정복합어로서 ‘padasya arthāḥ’(말이 지시하는 대상), 즉 말의 지시대상(abhidheya), 앞의 대상(jñeya), 그리고 바른 인식(pramiti)의 대상이다. 따라서 바이췌시까에 있어 바른 인식수단(pramāna)은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 14) 뿌라샤스따빠다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체계화된 바이췌시까 철학은 처음에는 “실체(dravya)·속성(guṇa)·운동(karma)·보편(sāmānya)·특수(viśeṣa)·내속(samavāya)”의 여섯만을 범주로서 인정했지만 후대에 이르러 비존재(abhāva)를 더해 7범주로 완성했다. 7범주는 슈리하르샤(Śrīharsa, ca.1150년경), 우다야나(Udayana, ca.1020-1050)도 인정하지만 그것을 정형화한 이는 쉬와디띠야(Śivādītya)이다. 이들의 논서는 통상 “열거(uddeśa) ⇨ 정의(lakṣaṇa) ⇨ 비판(parīkṣā)”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참조. 이지수, 앞의 논문, pp.25-26.

들—흙(ṛthivī)·물(ap)·불(tejas)·바람(vāyu)·허공(ākāśa)·시간(kāla)·방향(diś)·아뜨만(ātman)·마나스(manas)—을 인정하고 있다.¹⁵⁾ 이 중 흙·물·불은 두 가지 감각들에 의해 파악되고, 나머지 여섯 가지는 추리에 의해 인식되지만 감각에 의해 지각되지 않는다.¹⁶⁾ VS 3.1.1-16은 아뜨만의 존재 증명(prasiddhi)을 시도하고 있고,¹⁷⁾ 이 가운데 다음의 수뜨라는 실체에 관한 그들의 지각에 대한 정의에 해당한다.

VS 3.1.15: “ātmendriyamanorthasannikarṣād yan niṣpadyate tad anyat ||”¹⁸⁾
 (아뜨만·감관·마나스·대상 간의 접촉 결과로 발생한 그것[않]은 [인식 수단으로서] 별개의 [지각]이다).

PS(V)에 대한 지넨드라부띠(Jinendrabuddhi, ca.725-785)의 복주서 *Viśālāmalavati Pramāṇasamuccayaṭīkā* (이하 PST)에서 바이췌시까 학파의 지각론에는 두 갈래의 흐름이 있었다고 전한다.¹⁹⁾ 우선 슈라야스까(Śrāyaska)²⁰⁾ 등은 결과로서의 인식]는 인식수단과 별개이고, “감관과 대상²¹⁾의 접촉”(indriyārtha sannikarṣ

15) VS 1.1.4 [Isaacson(1995), p.216:4]: “ṛthivy āpas tejo vāyur ākāśam kālo dig ātmā mana iti dravyāṇi ||”

16) Chatterjee, S.C. and D.M. Datta, 『학파로 보는 인도 사상』, 김형준 역 (서울: 예문서원, 1999), pp.235-39 참조.

17) VS 3.1.9-13 [Isaacson(1995), p.220:17-22]: “saṃyogi samavāyī ekārthasamavāyī virodhi ca kāryam kāryāntarasya kāraṇam kāraṇāntarasya virodhy abhūtaṃ bhūtasya bhūtam abhūtasya bhūtam abhūtasya bhūtaṃ bhūtasya … asan samdīgḍhas cānapadeśaḥ ||” 대상-x가 y와 연합한 결합인(結合因, saṃyogin), y 내의 내속인(內屬因, samavāyin), y가 내속한 동일 사물에 내속하는 동일 내속인(ekārtha samavāyin), y에 상위하는 오류인(誤謬因, virodhin)으로 간주될 때 알려진 대상-x는 추리의 증상(liṅga)이 되며, 대상(karman)과 감관(karāṇa)이 인식주체(kartr)의 결합인이어서 인식주체인 아뜨만을 추리할 수 있다. 세 종류의 오류인, 즉 오류인(aprasiddha = viruddha[相違因])·비실재인(asat = asiddha[不成因])·비결정인(samdīgḍha = anaikāntika[不定因])이 있다.

18) Isaacson, *op. cit.*, p.220:24. cf. Bronkhorst, J. “Once Again Vaiśeṣika Sūtra 3.1.13,”(*Asiatische Studien/Études Asiatiques* 48(2), 1994), pp.668-70. 여기에서 브롱코스트는 이 계송을 VS 3.1.13으로 소개하고 이 계송이 인용된 후대의 7가지 논서들을 소개했다.

19) PST B 28b5-29a5 [Steinkellner *et. al.*(2005), Part I, pp.118-119]. cf. 티벳역 PST 53b5-7(60a8-60b3).

20) 핫토리(Hattori, *op. cit.*, p.135, fn.4.6)에 따르면, 이 논사의 이름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고 오히려 니야야 학파의 가우따마(Gautama)의 *Nyāyasūtra* (이하 NS) 1.1.4에서 지각을 감관과 대상의 접촉을 통해 발생한 앎이라고 정의하고 또 이 경을 주석한 바츠야야나(Vātsyāyana)의 *Nyāyabhāṣya* (이하 NBh) 2.1.26에서 감관과 대상의 접촉이 지각의 특수인(viśiṣṭa kāraṇa)이며 아뜨만과 마나스의 접촉과 마나스와 감관의 접촉은 추리지의 인이라고 주장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a)²²⁾이 인식수단이자 불공인(不共因, *asādhāraṇa kāraṇa*)이라고 주장하고, 반면 같은 학파의 사라스바따(*Sārasvata*)²³⁾ 등은 인식주체(*kartr*)로서 아뜨만이 앞의 주요인(主要因, *pradhāna*)이며 추리적 증상(*liṅga*)의 앞을 갖는 그 [인식] 결과의 향수자(*phalopabhoktr*)라고 말한다. 나아가 마나스 역시 일체를 그 인식대상으로 취하기에 무릇 앎[知]이 발생하는 어디든지 현현하는 앎[知]의 주요인이 되고, 따라서 결과적으로 “아뜨만과 마나스의 접촉”(ātmananaḥ sannikarṣa)이 인식수단이자 주요인이 된다. 따라서 마나스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앎[知] 역시 발생할 수 없다²⁴⁾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그들의 지각에 대한 정의는 다음의 수뜨라와 상충하는 것으로 보인다.

VS 10.1.3-4 : “saṃśayanirṇayāntarabhāvaś ca jñānāntaratve hetuḥ || tayor niṣpattiḥ pratyakṣalaṅgikābhyāṃ jñānābhyāṃ vyākhyātā || ”²⁵⁾(다른 존재에 대한 의심과 확정은 다른 앎에 있어 원인이고, 두 가지[의심과 확정]의 발생은 지각과 추리지[의 발생을 언급한 경전]에 의해 설명되었다).

위 수뜨라에 따르면, ‘의심’(saṃśaya)은 추리 증상(*liṅga*, ㉠ 연기)의 지각과 그리고 이러한 증상과 그 담지자(*liṅgin*, ㉡ 불) 사이의 불가분 관계의 기억에서

21) 본 논문에서 ‘대상’(object)을 사용하는 필자의 기준은 “*artha* [가장 넓은 범주의 대상] ⊃ *viṣaya* [인식의 대상] ⊃ *ālambana* [所緣, *dmigs pa*, 찰나적 대상]”으로 이해함을 밝힌다.

22) 바이췌시카 학파는 감각과 대상 간의 5가지 접촉을 인정한다: (1) 눈이 향아리를 인식하는 것에 의한 결합(*samyoga*), (2) 눈이 향아리의 색을 인식함으로써 결합된 내속(*samyukta samavāya*), (3) 눈이 향아리의 색에 존재하는 일반 특징을 인식하는 것에 의한 결합된 내속하는 것에 내속(*samyukta samaveta samavāya*), (4) 귀가 소리(허공[*ākāśa*]의 속성)를 인식하는 것에 의한 내속, (5) 귀가 소리에 존재하는 일반 특징을 인식하는 것에 의한 내속하는 것에 내속이다. 니야야의 웃도따까라는 이상의 5종류를 포함해 비존재 인식에 의한 한정자-피한정자의 관계를 추가해 6가지 접촉설을 제시했다(NV, p.31:1). 참조. Hattori, *op. cit.*, p.137, fn.4.13.

23) PST 산스끄리트 복원본(Steinkellner *et. al.*(2005), Part I, p.119:2)의 사라스바따는 이전 티벳역 PST 본의 라바나(*Rāvaṇa*, *dbyangs can pa*)와 동일 인물로 봐야 한다. 그는 뿌라샤스따빠다 이전에 살았고, VS의 광설 주석서 *Vaiśeṣikabhāṣya* 또는 *Rāvaṇabhāṣya*를 저술했지만 현존하지 않는다.

24) VS 3.2.1 [Isaacson(1995), p.220:27] : “ātmendriyārthasannikarṣe jñānasyābhāvo bhāvaś ca manaso liṅgam || ”(마나스의 [존재에 대한] 증상은 아뜨만·감관·대상 사이에서 접촉이 있을 때 앎이 있는지 없는지에 [달려] 있다).

25) Isaacson, *op. cit.*, p.228.

결과를 낳는 추리지(推理知)와 비슷하고,²⁶⁾ 우리가 감각을 통해 대상의 개별적 형상을 직접 지각할 때 의심은 소멸되고 ‘확정’(nirṇaya/nīścaya)이 일어난다고 바이췌시까들은 주장한다. 그러나 지시대상·‘이것’²⁷⁾의 지각이 “이것은 A이거나 혹은 B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반드시 제거할 수 없거니와, “이것은 A이다(그리고 B는 아니다)”처럼 정형화된 확정만이 의심을 제거할 수 있음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즉 A에 대한 감각의 직접적인 주어짐 ‘이것’을 연합하는 과정을 통해서 A라고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다. 개념적 구상이 확정에 선행하고, 반면 아프만·감관·마나스·대상의 접촉에서 발생한 앎은 ‘인식대상의 단순한 현현’(viśayālocanamātra)²⁸⁾에 이은 확정을 통해 발생한 앎과 동일하지 않다. 왜냐하면 네 가지 접촉에 의해 대상 자체의 단순한 현현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상에 대한 이러한 직접 경험(anubhava)에서 어떻게 개념적 구상이 있을 수 있겠는가? 따라서 지각을 통해 일어난 인식과 일치하듯이 확정을 통해 일어난 인식을 다뤘던 VS 10.1.3-4는 네 가지 접촉에서 일어난 지각 정의를 다른 VS 3.1.15와 내용상 상충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감관과 대상의 접촉”이 인식수단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경우 확정을 포함한 개념적 구상을 무시하고 있고, 또 확정 역시 “감관과 대상의 접촉”으로부터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확정의 경우 “감관과 대상의 접촉”이란 말의 확대 적용(atideśa)을 인정할 수 없게 된다. 만약 인정된다고 하면, 의심(saṃśaya)과 추리 또한 “감관과 대상의 접촉”으로 발생한 앎[知]으로 간주될 것이고, 또 이것들은 한정자들이 대상에 내속(samavāya)되어 있어 감각이 보편

26) VS 2.2.19 [Isaacson(1995), p.219:19] : “sāmānyapratyakṣād viśeṣāpratyakṣād viśeṣasmṛteś ca saṃśayah ||”

27) cf. PSV 5.50c1: “yo ’yaṃ sambandhaḥ sa eva tarhi śābdasya <prameyam> bhaviṣyati”([지시대명사] ‘이것’(ayaṃ)이 묶여진 바로 그것이야말로 말의 <인식대상>이 될 것이다).

28) “ālocanamātra”는 지각을 묘사하기 위해 뿌라샤스따빠다에 의해 사용된다(PBh, p.552:30, 553:21). 그렇지만 그의 이 용어가 디그나가에게 알려졌음을 추측할 만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참조. Hattori, *op. cit.*, p.136, fn.4.10. cf. 『阿毘達磨俱舍論』卷2(『大正藏』29, p.10下20-23), “若爾眼根不能決度 云何名見 以能明利觀照諸色故亦名見 若眼見者餘識行時亦應名見 非一切眼皆能現見”(만약 이 안근이 결정적으로 [대상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어찌 봄이라 말하겠는가. 능히 밝고 예리하게 모든 색을 관조하는 까닭으로 또한 봄이라 일컫는다. 만약 눈이 봄 이외에 다른 식이 작용할 때도 역시 봄이라고 응당 말한다면, 모든 눈이 현행적 [대상을] 모두 다 본다 할 수 없을 것이다).

등의 한정자를 지닌 대상을 파악함으로써 “감관과 대상의 단순 접촉”에 의해 확정이 발생한다고 바이췌시까들은 모순을 말하고 있는 셈이다.²⁹⁾

III. PS(V) 1.21–24에서 디그나가의 바이췌시까 비판

바이췌시까들은 VS 8.1.4-8에서³⁰⁾ 감관과 대상의 단순 접촉이 인식수단이며, “지각은 보편과 특수에 의존하며 또한 실체·속성·운동에 의존한다”(sāmānyaviśeṣāpekṣam dravyaguṇakarmāpekṣam ca pratyakṣam)³¹⁾고 말하지만, 이러한 바이췌시까 언설은 옳지 않다(na yujyate)고 디그나가는 PSV 1.21ab에서 주장한다. 즉 감관과 대상의 접촉에서 발생한 그 앞은(indriyārthasannikarṣotapannasya),³²⁾

PS 1.21ab: “viśayālocanārthatvān na sandhānam viśeṣaṇaiḥ | ”([한정][인식] 대상의 단순 현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그 대상의] 한정자와 관계가 없다).³³⁾

29) 찬드라난다(Candrānanda)는 *Vaiśeṣikasūtravṛtti* (이하 VSV)에서 5가지 내속(samavāya) 관계를 말하고 있다(VSV 7.2). 상세한 설명은 Matilal(1986), pp.253-291을 참조하라.

- (1) 부분과 전체(avyāvāyavināu, ㉠ 천* 실과 옷),
- (2) 속성과 속성을 지닌 것(guṇaguṇināu, ㉠ 색과 향아리),
- (3) 운동과 실체(kriyākriyāvantaū, ㉠ 가는 중과 향아리),
- (4) 보편과 개별[*현현](jāti vyaktī, ㉠ 향아리성과 향아리),
- (5) 특수와 항구적 실체(viśeṣanityadravyau, ㉠ 특수와 극미).

30) VS 8.1.4-8 [Isaacson(1995), p.227:4-10].

31) PSV 1.21ab [Steinkellner(2005), p.10:13].

32) PSV 1.21ab [Steinkellner(2005), p.10:14].

33) 뿌라샤스파빠다는 실체와 관련해 지각을 어떤 한정자와 관계없는 대상 자체의 단순 현현, 즉 ‘자상의 단순 현현’(svatūpālocanamātra)이라고 특징짓고, 보편·특수·실체·속성·운동과 같은 한정자에 의해 조건 지워진 아프만과 마나스의 접촉에서 “실체는 존재한다”, “이 실체는 흙이다”, “이것은 뿔이 달린 것이다”, “흰색이다”, “소가 간다” 등의 형태로 지각이 발생한다고 말한다(PBh, p.553:2-5). 더욱이 보편과 특수를 지닌 대상과 관련해 ‘자상의 단순한 현현’은 실체 등을 그 대상으로 삼는 인식결과를 발생하는 인식수단인 지각이라고 말한다(PBh, p.553:2-23). 그렇다면 그는 무분별현량(nirvikalpaka pratyakṣa)과 유분별현량(savikalpaka pratyakṣa) 간의 차이를 분명히 인정하는 셈이다. 디그나가는 뿌라샤스파빠다보다 연대기적으로 앞서기에 이러한 구분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참조. Hattori, *op. cit.*, p.138, fn.4.16. cf. PS 1.5: “dharmiṇo ’nekarūpasya na indriyāt sarvathā gatīḥ | svasamvedyam hy anirdeśyaṃ rūpam indriyagocarah || ”(다수의 형상을 지닌

위 계층에서 디그나가는 지각을 ‘인식대상의 단순한 현현’(viṣayālocanamātra)이며, 나아가 “감관과 대상의 접촉에 의해 발생한 앎은 대상 현현 이외의 한정자들을 배제한 것”이라고 정의한다. 감관지는 그들 각각의 대상들만을 한낱 파악하기 때문에 보편과 특수과 같은 대상들의 한정자들과 연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상이 보편과 특수에 의존해 인식될 경우 ‘개념적 구상’[분별]에 의해 이 두 요소 간의 결합을 구축하는 것은 사실상 두 요소인 대상 자체와 그것의 한정자를 인식한 이후의 사태(事態)이다. 실제로 대상은~의 소유자 또는~의 토대로서 실체 등의 소유자 또는 토대로 간주된다. 그렇다면 실체 등의 소유자/토대로서 대상 자체와 그 기술 간에 소유를 표현하는 접사 생략(matublopa)에 의해 대상은 ‘존재하는’, ‘뿔을 가진’ 등으로 파악된다.³⁴⁾ 더욱이 한정자는 기억에 의해 환기되기에 한낱 의지각(意知覺)과 동일시된다.³⁵⁾ 이와 달리 두 개의 개별적 인식대상들과 관련한 앎이 지각으로 간주된다면, ‘향기로운(surabhi) 맛들은 달콤하다(madhura)’는 앎조차 지각이라는 애매한 결론에

유법은 감관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알 수 없고, 실로 감관의 대상인 형상은 자기의식이며 말로 표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

- 34) 감관의 대상-x는 다른 것과 관계없는 대상-x 자체로 인식되지만 표현 불가능하기에 우리는 대상-x와 연관된 다른 무언가를 통해서 단지 표현할 수 있다. 존재, 실체, 뿔을 지닌(viṣānin), 백색(śukla), 간다(gacchati)와 같은 말들이 대상-x에 적용될 때, 그것들은 오직 대상-x만을 연상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은 대상-x는 존재[보편], 실체성[특수], 뿔[실체], 백색[속성], 감[운동]과 각기 연합한다. 대상-x는 존재의 소유자(tadvat)/토대(adhikarāṇa/āśraya)로 기술하기 위해 마뿔(matup; -mat, -vat)이 존재에 접사되어야 한다(Pān 5.2.94: “tad asyāsty asmīn iti matup”). 따라서 sattāvāt, dravyatvavat, viṣānavat, śuklavat, gamanavat를 구성하고, sat는 sattāvāt로 대치된다. 즉 대상-x에 대한 기술은 외형상 오직 대상-x에 관련한 단어들에 의해 대치된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대상-x 자체를 존재에 연상하는 심적 과정을 개관하는 경향이 있고, 대상-x가 존재로 인식된다고 생각한다. sattāvāt와 dravyatvavat를 sat와 dravya로 대치하는 것에 대해 “tattvavat tad eva”(그것임을 가진 것은 다름 아닌 그것이다; 牛 소성[牛性]을 가진 것이 소[牛]이다)라는 규칙이 있다. śukla는 마뿔을 통해 śuklavat로 대치될 수 있다(Pān 5.2.94. Vār 3: “guṇavacanebhyo matupo luk”). 실체와 운동을 나타내는 말들은 실체와 운동의 소유자/토대로 결코 표현될 수 없기에 viṣāna(뿔)와 gamana(감)는 viṣānavat와 gamanavat로 대치될 수 없다. 여기서 디그나가는 대상-x가 존재의 단어를 통한 표현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순수한 지각 형태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참조. Hattori, *op. cit.*, pp.138-139, fn.4.17.
- 35) 디그나가는 한정자가 기억의 매개를 통한 과거의 것들과 비매개적 감관 소여와 관계를 맺는 마나스에 의해 구축된다고 말한다. 니야야 학파의 밧짜스빠띠미슈라는 한정자의 앎이 피한정자의 앎보다 선행한다고 각기 주장한다(NVTT, p.125:3-12). 피한정자의 앎이 발생할 때 한정자의 앎은 이미 과거에 존재하기에 한정자가 피한정자와 관계를 맺으려면 기억을 통해 환기되어야 한다. 참조. Hattori, *op. cit.*, p.139, fn.4.18.

이르게 될 것이다. 한정자[단맛]와 피한정자[달콤한 향기]는 각기 다른 감각인 미각과 후각에 의해 파악되기 때문에 보편·특수에 의존하거나 또는 실체·속성·운동에 의존하는 얇은 단지 대상 자체에 작용하는 감각지(感官知)와 같지 않을 것이라고 위 전반부 계송에서 디그나가는 주장한다. 이어서 PS 1.21 후반부 계송을 살펴보자.

PS 1.21cd: ““naikam rūpādyabhedo vā dr̥ṣṭam cen nendriyeṇa tat ||”(만약 [바이췌시까에서 주장하는] 그것이 지각된다면, [그것은] 단일한 것이 아니거나 혹은 색 등의 차이가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감각을 통해서 [지각된 것이] 아니다).³⁶⁾

이상의 후반부 계송에 따르면, 실체가 다른 감각들에 의해 파악된다는 바이췌시까들의 견해를 인정하면 색 등의 개체들처럼 다수가 될 것이고, 또 우리가 다른 감각들에 의해 그것들을 파악함에도 불구하고 단일한 것들은 결코 경험할 수 없다고 말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다.³⁷⁾ 다시 말해, 실체가 다른 감각들에 의해 파악됨에도 불구하고 단일 개체로 인정된다면, 색 등의 다수의 개체들은 실체처럼 차이가 없다(abhinna)는 오류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대해 디그나가는 우리가 실체에 대해 무분별지(無分別知, abhinnaṃ-jñānam)를 경험하지만, 그러한 얇은 감각들에 의해 주어지지 않을뿐더러 또한 하나의 감각(예 촉각)의 대상에 대해 다른 감각(예 시각)으로 파악된 얇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지는 PS 1.22 전반부 계송을 살펴보자.

36) 이 계송에 대한 미망사 학파의 꾸마릴라의 비판이 있다. ŚV 4.156: “na cānekendriyagrāhyam bhinnatām pratipadyate | mā bhūḍ bhinnaśarīrasya grāhyatvād bhinnarūpatā ||”

37) 지넨드라붓디는 ‘능변(能遍)과 모순되는 것의 인식’(Vyāpakaviruddhopalabdhi = NB 2.39)의 정형구로 디그나가의 주장을 요약한다(PST B 31b6 [Steinkellner et. al.(2005), Part I, p.125:1-2]): “무릇 다수의 감각들에 의해 파악되는 것은 단일하지 않다(yad anekendriyagrāhyam na tad naikam). 마치 색 등과 같이(rūpādivat). 실체 또한 [다수의 감각들에 의해 마찬가지로 파악된다](tathā ca dravyam). 따라서 [실체는 단일하지 않다](iti)” ‘능변과 모순되는 것의 인식’에 대해서 Stcherbatsky, *Buddhist Logic II*, pp.96-97을 참조.

PS 1.22ab: “akṣāṇekatvavaiyarthyaṭ svārthe bhinne ’pi śaktimat | ”(그 자신의 대상에 대한 능력을 지닌 것은 [그 대상의] 다른 측면들에서조차 그런 능력을 지니고 있기에 감각들의 다양성은 쓸모없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상의 계승을 통해, 디그나가는 우리가 하나의 감각을 통해 나머지 감각들의 대상을 파악하는 능력(śakti)을 인정한다면, 색 등의 다양한 대상들에 인식하는 다양한 감각들(akṣāṇekatva)은 쓸모없을 것(vaiyarthya)이라고 주장한다. 또 다시 바이쉐시까들은 “색 등의 대상들 중 청색, 황색 등 형형색색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감각이 하나의 대상에 속해 있다면, 하나의 감각은 이러한 형형색색을 파악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반박한다. 이에 대해 디그나가는 대상 자체에 대한 능력을 지닌 하나의 감각이 그 대상의 다른 측면에서도 심지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svārthe bhinne ’pi śaktimat”)라고 반론을 전개한다.

PS 1.22cd: “sārvendriyatvaṃ āpnoti na dravyādau tathā sati || ”(예컨대 유(有)와 같은 실체 등의 경우 모든 감각들에 의해 파악될 수 없을 것이다).

바이쉐시까들은 특정 감각에서 대상의 다양한 측면인 숫자(saṅkhyā)와 질량 등의 특성이 있는 다양한 색(rūpa) 등은 비록 차별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각을 통해 일의적으로 파악될 수 있다고 말하고, 그것들은 또 다른 감각에 의해 결코 파악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³⁸⁾ 이에 대한 디그나가의 반론은, 색과 달리, 만질 수 있는 것(sparsā)은 또 다른 감각의 대상으로 파악되는 데 이것은 시각의 대상이 아니라 촉각의 대상이기에 촉각의 대상인 실체는 결코 시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³⁹⁾ 만약 촉각에 의해 파악된 실체가 동시에 시각에 의해서 파악된다면, 별개의 감각조차 시각에 대한 특수 형상이 된다고

38) VS 4.1.6-11 [Isaacson(1995), p.221:22-28].

39) 위 각주 37 참조. * “무릇 촉각의 대상이 무엇이든지 시각의 대상이 아니다. 마치 촉과 같이. 실체 또한 촉각의 대상이다. 따라서 실체는 시각의 대상이 아니다.”

분명 인정해야 하지만 우리가 청색 등의 색들을 파악하는 것처럼 촉각의 대상들조차 시각에 의해 파악된다는 모순을 발생한다고 반박한다. 따라서 대상들의 차이성(bhinnatva)은 그것들에 대해 하나-이상/다른/다수의 감각들에 의해 파악된 것(anekendriya grāhyatva)⁴⁰⁾—두 개의 다른 대상들, 예컨대 청색과 황색이 동일 감각인 시각에 의한 파악—의 원인(kāraṇa)이 아니라 오히려 별개의 감각 대상들에 대해 파악하지 못함이 원인이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대상은 차이가 없더라도 다수의 감각들에 의해 파악되어야 할까? 만약 그렇다면, 모든 다른 대상인 색 등은 모든 감각들에 의해 각기 파악될 것이고, 단일한 실체가 다수의 감각들에 의해 파악되는 것처럼 색 등은 하나의 특정한 감각의 대상들이 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디그나가는 강변하고 있다.⁴¹⁾

이에 반해 바이쉐시카들은 자신들에게 이러한 과실이 있지 않으며 각기 그 개별(상)을 가진 색과 다른 대상들은 이러한 지각들의 결정적 원인[결정인]이고 그러한 개별(상)의 비존재로 인해(tadabhāvāt) 시각 이외의 지각들이 청색을 파악하는 것은 일탈(vyābhicāra)이 없다고 말한다.⁴²⁾ 다시 말해, 청색은 만질 수 있는 개별(상)을 결여하고 있고 또 촉각은 청색의 파악을 일탈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이다.⁴³⁾ 그들은 “어떻게 색 등의 대상들은 지각들의 결정적 원인이 될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 묻고서, “색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은 시각에 의해 파악되지 않고, 또한 이와 같이 촉각의 대상 등은 그들 각각의 대상들을 취

40) 바이쉐시카 주장은 다음과 같이 정형화될 수 있다. 참조. Hattori, *op. cit.*, p.141, fn.4.35.

- * 주 장 : 색은 다수의 감각들의 소취행상이다(anekendriya grāhya).
- * 이 유 : 왜냐하면 다양하게 차별되어 있기 때문이다(bhinna).
- * 유 레 : 무릇 차별진 것은 다수의 감각들의 소취행상이다(anekendriya grāhya).
마치 색, 촉 등과 같은 다양한 대상들처럼.

41) PS(V) 1.21-22 [Steinkellner(2005), p.11:5-20].

42) VS 4.1.8 [Isaacson(1995), p.221:24] : “tadabhāvād avyābhicārah ||”

43) VS 4.1.6: 앎[知]이 다수의 극미를 지닌 것과 함께 내속한 색으로 인한 ‘강도’(剛度, magnitude)를 지닌 실체에 대해서 발생한다. VS 4.1.7: 인식이 다수의 극미를 지닌 것과 함께 내속하는 색의 특성으로 연상해 발생하는 것과 같이 맛·냄새·촉각과 관련한 인식 또한 설명된다. 짚드라난다는 극미의 색(paramāṇu rūpa)이 다수의 극미를 지닌 실체에서의 내속의 비존재로 인해 인식되지 않기에 색과 관련해 일탈이 없다고 주장하고, 상까라미슈라(Saṅkaramiśra)는 그것이 강도를 지닌 실체와 색에 내속하더라도 무거움(gurutva)은 시각에 의해 인식되지 않음으로써 시각이 색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함은 일탈이 없다고 말한다. 참조. Hattori, *op. cit.*, pp.141-142, fn.4.37.

하는 감각들의 결정적 원인이다”라고 변론하고 있다.⁴⁴⁾ 이 주장에 따르면, 시각과 촉각의 어떠한 작용(vṛtti)도 실체 등에 대해 가능하지 않게 될 것이다. 따라서 디그나가는 실체, 수(數) 등과 같은 속성과 작용은 색성(色性)과 촉성(觸性)을 결여한다고 바이쉐시까들도 인정하고 있어 시각이나 촉각에 의해 그것들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재반박한다.⁴⁵⁾

이러한 디그나가의 재반박에 맞서 바이쉐시까들은 색성이 존재하는 것은 시각의 대상이라고 항변한다. 그들은 다른 감각들의 대상, 예컨대 만질 수 있는 것(sparśa)에 대해서 동일한 원리가 유지되고, 감각지(感官知)의 결정적 원인으로서 특정 영역인 만질 수 있는 것에 존재하는 촉성은 있다고 주장한다.⁴⁶⁾ 개별적 감각 대상의 특정 영역, 즉 색성은 그것들 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실체로서 그러한 개체들의 경우 이와 같이 감각지의 확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실체 등은 모든 감각들에 의해 파악될 수 있다는 것이다.⁴⁷⁾ 하지만 디그나가는 이상의 주장이 바이쉐시까 자신들의 교설과 어긋난다고 PS 1.23 계송에서 지적한다.

PS 1.23ab: “tadabhāvād abhāvadvād agrahasya anyagocaram | ”(그것이 비 존재하기 때문이란, [한낱] 다른 대상들에서 *파악하지 못하기에 비존재 하는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44) PS(V) 1.21-22 [Steinkellner(2005), p.11:21-24].

45) PS(V) 1.21-22 [Steinkellner(2005), p.11:26-27].

46) 이상의 바이쉐시까 주장을 요약하면, 대상-x에 있는 y 속성(y-tva)[y입]의 비존재로 인해(tadabhāvāt) 대상-x에 순응하는 감각은 그 대상으로 y를 취하지 않고, 대상-x에 있는 y 속성의 비존재란 표현을 대상-x에 있는 x 속성(x-tva)[x입]의 존재로 바꾸고 있다. 그러나 이 치환은 맞지 않다. 왜냐하면 대상-x에 있는 x 속성의 존재는 대상-x에 있는 y 속성(y-tva)의 비존재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디그나가는 ‘tadabhāvāt’(대상-x에 있는 y 속성의 비존재로 인해)를 ‘tadbhāvāt’(대상-x에 있는 x 속성의 존재로 인해)로의 치환은 경전상 오류(sūtravirodha)라고 지적한다.참조. Hattori, *op. cit.*, pp.141-142, fn.4.42.

47) PS(V) 1.22-23 [Steinkellner(2005), p.12:1-3]: “evaṃ tarhi yasya rūpatvam, tac cakṣuṣā grāhyam. tasmāt sparśādāv api tadvan niyāmakatvena viśeṣaḥ. evaṃ ca rūpatvādyabhāvād dravyādiṣu niyamābhāvaḥ syād iti cet.”

VS 4.1.8에서 “[대상의 특정 영역이 또 다른 대상에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tadabhāvāt*”)라는 바이췌시까 주장은 “비존재로 말미암은 어떠한 일탈도 없다”(“*abhāvād avyabhicāra*”)는 그들의 수뜨라와 모순된다. 예컨대 소리 등에서 색성 등이 비존재하기에 일탈이 없다고 주장하고, 반면 존재의 수단을 갖는 색 등에서 색성 등이 비존재하기에 일탈이 없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바이췌시까의 이 그릇된 사고는 자신들의 수뜨라와 어긋날 뿐더러 논리적 관점에서조차 수용될 수 없다. 왜냐하면 비(非)파악이란 한낱 비존재일 뿐이기 때문이다 (“*abhāvatvād agrahasya*”).

대상에 존재하는 색성이 시각에 대한 고유한 대상이 된다는 것은 다른 감각들에 의해 파악되지 않음과 능취(能取)의 비존재를 의미한다. 그러한 비존재가 어떻게 현색 등을 발생시킬 수 있겠는가? 능취의 비존재는 원인의 비존재가 원인이어야만 하고, 반면 현색 등의 존재가 비존재의 원인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색성과 같은 요인들은 감각지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주장함은 타당하지 않다.⁴⁸⁾ 바이췌시까 학파에서 다음과 같이 반문한다고 가정해 보자. “실체 등에서 우리는 시각이나 촉각을 통해 실체의 무분별지를 경험하고, 만약 실체가 단일하지 않다면 이 무분별지는 과연 어떻게 존재할 수 있단 말인가?”⁴⁹⁾

이에 디그나가는 PS 1.23b에서 이 무분별지가 그 대상으로 실체, 즉 개념적으로 구축된 다른 무언가라고 생각한다(“*anyagocaram |*”). 예를 들어 개별적(*bhinna*)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대상은 시각과 촉각에 의해 인식된다. 거기서 그 대상은 개별적 대상이 연합되는 개념적 구상의 집합체(*samudāya*)로 간주되는 ‘기억에 [기반한] 앎’(“*smaraṇa jñāna*”)을 통해 하나의 대상을 파악하는 또 다른 앎이 발생하고 또 이 앎은 기억에 의해 매개된다고 알려져 있다. 만약 색 등의 이전의 앎이 없다면, 그러한 앎이 발생되지 않았으므로 다른 감각들의 대상들이 동일한 실체로서 인식되는 것은 바로 이 앎에 의한 것이다.

48) PSV 1.23 [Steinkellner(2005), p.12:10-12]: “*indriyānatāreṇāgrahaṇam hi grahaṇābhāvaḥ. sa katham rūpatvādinā kriyate. syāt tu hetvabhāvād grahaṇābhāvaḥ. tasmād rūpatvādinām niyāmakatvam na yujyate.*”

49) PSV 1.23 [Steinkellner(2005), p.12:13]: “*yat tarhi dravyādiṣv abhedajñānam dṛṣṭam, tat katham iti cet.*”

바이췌시까 학파는 개별적 감각들에 의해 파악된 대상이 항상 다수가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 유성(sattā; 존재)과 속성(guṇatva)의 사례를 인용해 왔다. 그러나 디그나가 이후 불교논사들은 유성과 속성에 의해 한정된 개별적 대상에 상대하는 감각을 통한 인식 이후에 ‘타자의 배제’(arthāntara vyavaccheda)⁵⁰⁾를 통해 그 대상들로부터 개념적 구상된 보편(상)을 인식하기 때문에 모든 대상에 대한 의지각(意知覺)이 발생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유성과 속성은 감각에 의해 직접적으로 결코 인식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보편에 대한 얇은 함축조차 지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처럼 유성과 속성이 지각에 의해 파악된다는 그 연결 고리는 단지 궤변론자들(kutārkika)의 어리석은 개념(abhimāna)일 뿐이라고 디그나가는 힐난한다.⁵¹⁾

PS 1.23cd: “tulyagocarateṣṭā ced anīṣṭam anuṣajyate ||”(만약 [한정자(viśeṣaṇa)와 피한정자(viśeṣya)] 모두 동일 감각의 대상들이라면, 이것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을 따르는 셈이 될 것이다).

바이췌시까들은 한정자가 파악되지 않는다면, 피한정자에 대한 얇이 발생하지 않아 한정자와 피한정자는 모름지기 동일 감각의 대상들이라고 인정한다. 또 한정자와 피한정자 모두 동일한 감각의 대상들이라고 인정한다면, 다시 말해 VS 1.1.7⁵²⁾에서 말하듯 실체·속성·운동이 내속함으로써 실체를 갖는다면, 실체가 실체·속성·운동에 대한 한정자가 됨으로써⁵³⁾ 속성을 파악하는 그

50) PS 5.1cd: “svārtham anyāpohena bhāṣate |”(자신의 의미[대상]는 타자를 배제함으로써 드러난다); PS 2.14: “guṇatvagandhasaurabhyatadviśeṣair anukramāt | adrvyādivyavaccheda ekavṛddhyotpalādivat ||”(비실체 따위의 배제란 연꽃 등과 같이 그것의 특수들인 속성, 냄새, 향기를 순서대로 하나씩 떼어내는 것이다).

51) PSV 1.23 [Steinkellner(2005), p.12:14-18].

52) VS 1.1.7 [Isaacson(1995), p.161:2-3]: “sadanityaṃ dravyavatkāryaṃ kāraṇaṃ sāmānyaviśeṣavaditi dravyaguṇakarmāṇāmaviśeṣaḥ ||”

53) VS 1.1.14 [Isaacson(1995), p.164:1]: “kriyāvadguṇavatsamavāyikāraṇamiti dravyalakṣaṇam ||” 이 표현이 적용될 때 속성은 실체의 한정자이다. 하지만 소유접사 -vat(~가진)는 x-vat가 x의 원인임을 필연적으로 의미하지 않는다. 예컨대 아버지가 아들을 가진 자(putravat)라고 불리지만, 아들이 아버지를 가진 자(pitrvat)라고 불리지 않는 것과 같다. 이 경우 실체와 속성 간의 내속 관계가 속성의 측

런 감각들에 의해 파악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쉽게 말해, 색, 맛 등의 속성들 중 하나를 각기 파악하는 다섯 감각들이 있고, 실체는 유성처럼 모든 다섯 감각들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디그나가는 이러한 결론 역시 바이췌시까 자신들조차 수긍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입장에서 실체는 유성의 한정자이기에 모든 감각들에 의해 인식될 수 있고, 또 유성은 하나의 실체를 지니고 있어 실체가 아니지만,⁵⁴⁾ 유성 역시 모든 감각들에 의해 인식된다고 주장하는 모순에 빠지기 때문이다.

VS 1.2.18에 따르면, 존재(=유성)는 차이가 없는 것이고(abhinna).⁵⁵⁾ 차이가 없을 때 존재는 어디에나 있고 또 실체와 같이 무릇 존재하는 것들에서 그것의 있음은 부정될 수 없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단지 실체에서 발생하는 그 존재가 하나의 실체를 지니고 있고, 반면 다른 개체에서 발생하는 것은 하나의 실체를 지니고 있지 않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차이가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바이췌시까 교설에 모순된다. 예를 들어, “불은 뜨겁다”는 얹이 시각에 의할 경우, 즉 동일 감각에 의해 한정자와 피한정자가 파악된다면, 그 뜨거운 감촉은 그 불의 한정자이기 때문에 시각의 대상 또한 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다. 따라서 유성과 속성처럼 실체가 다른 감각들에 의해 파악되는 것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없다고 한 바이췌시까 학파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게 된다. “한정자와 피한정자가 다른 감각들의 대상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차이가 있다”라는 바이췌시까의 이 모순된 주장에 대해서 디그나가는 PS 1.24계송으로 답하고 있다.

면을 고려할 때, 속성은 실체를 가진(dravyavat)다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실체는 한정자가 되고 속성은 피한정자가 된다.

54) VS 1.2.8-9 [Isaacson(1995), p.169:12,15]: “dravyaguṇakarmabhyo ’rthāntaram sattā || ekadravyavattvān na dravyam || ” 바이췌시까 학파는 두 종류의 실체, 즉 극미나 허공처럼 실체가 전혀 없는 실체(adravyam dravya)와 향아리처럼 다수의 실체를 갖는 실체(anekadravyam dravya)로 구분한다. 따라서 하나의 실체만을 갖는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55) VS 1.2.18 [Isaacson(1995), p.171:9]: “sallīṅgāviśeṣādviśeṣalingābhāvāccaiko bhāvaḥ || ”; cf. VS 1.2.10 [Isaacson(1995), p.170:3]: “guṇakarmasu ca bhāvān na karma na guṇaḥ || ”

PS 1.24ab: “anekānto ’nyathoktaṃ tan na sarvaṃ sādhyam ucyate |”(비결정
인이 있음은 [우리에 의해] 다른 방식으로 설명되었고, [다양한 형상이
있는] 일체를 인식대상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상에서 디그나가가 비결정인[不定因]이 있다고 한 것은, 첫째, 실체·속성·
운동 간의 차이와 청색·황색 등의 색들 간의 차이가 설령 그것들이 하나의 동
일 감각의 소취행상(ekendriyagrāhya)일지라도 그 차이는 보이고,⁵⁶⁾ 둘째, 감각
의 차이가 없더라도 청색, 황색 따위의 색들 간의 차이는 능취의 특수(gra-
haṇabheda)가 원인인 점 역시 보이기 때문이다. 만약 대상-x가 전혀 없는데도 y
가 실재한다면, 대상-x는 y의 원인(kāraṇa)이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한정자와
피한정자를 각기 파악하는 감각 간의 차이는 한정자와 피한정자 간의 차이가
원인이 아니다.

불교 논사들에 따르면, 대상이 개별 감각들의 소취행상이어서 다수(多數)라
고 말하지만, 하나의 감각의 소취행상이기에 그것을 일자(一者)라고 말하지 않
는다. 만약 후자가 바이쉐시까의 주장이라면 비결정인의 과실이 있게 된다. 디
그나가는 단지 다른 감각들에 의해 파악된 존재의 본성으로 인한 다수뿐만 아
니라 개별 감각들에 의해 파악된 존재의 본성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다수가 존
재한다고 말한다.⁵⁷⁾ 개별 감각들의 소취행상보다 오히려 다수라는 또 다른 원
인이 있음을 보여 주기 위해 “비록 감각의 차이가 없더라도”라고 바이쉐시까
들은 말하지만, 디그나가는 추리를 통해 다양한 형상이 있는 일체가 인식대상
이라고 말하지 않는다(“na sarvaṃ sādhyam ucyate”). 다시 말해, 디그나가는 다
양한 일체가 감각이 다르기 때문에(indriyabhedāt)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56) 디그나가의 추론식은 아래와 같이 정형화된다. 참조. Hattori, *op. cit.*, p.145, fn.4.61.

* 주장: 한정자(viśeṣaṇa)와 피한정자(viśeṣya)는 차이가 있다.

* 이유: 그것들은 개별적 감각들의 소취행상이기 때문이다.

* 유래: 무릇 개별적 감각들의 소취성이 있는 곳에는 차이성이 있다. 마치 색과 촉, 그리고 나머지
대상들 같이.

57) NS 5.1.22: “asya [=arthāpatti samasya(想定-類似)] uttaramanuktasyārthāpatteḥ pakṣahāner upapattir
anuktatvād anaikānikatvāc cārthāpatteḥ || ”

감관들과 연합하는 저 대상들이 다수라고 그저 말했을 뿐이다. 그러므로 그는 능취의 특수가 다수의 원인인 점 역시 부정하지 않는다.⁵⁸⁾

PS 1.24cd: “*akṣābhede 'pi dhībhedād bhede 'bhedaḥ kuto 'nyathā* ||”(만약 그것들을 파악하는 감관이 동일하더라도 앎들의 차이로 인해 [대상들의] 차이가 [여전히] 있다면, [달리 말해 그것들을 파악하는 감관들이 다를 경우] 어떻게 [대상들의] 차이가 없다고 하겠는가?)

이상에서 디그나가는 두 개의 개별적 대상들[사물 자체와 그 한정자]이 개념적 구상에 의해서만 오직 연합되고 감관지(感官知)에 의한 일자(一者)로서 결코 인식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바이췌시까가 개별적인 다수의 감관들의 소취행상(bhinnendriya grāhya)은 일자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디그나가 다수가 동일한 하나의 감관의 소취행상이 될 수 있다고 반박하는 대목이다. 비록 감관들의 다름이 없더라도 ‘지(知)들의 차이’(buddhi bheda)에 근거해 대상들이 다수라고 주장하고 있어 지(知)들의 차이뿐 아니라 감관들의 다름 역시 있을 경우에 하나의 대상을 주장할 가능성은 사라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디그나가는 바이췌시까들이 속성 등의 인식이 감관을 토대하거나 혹은 마나스의 접촉 등을 통한 “네 가지 요소 등⁵⁹⁾의 접촉”에서 발생된다고 하는 그 앎[知]은 “감관과 대상의 접촉”(indriyārtha sannikarṣa)에서 항상 일어나지 않는다는 근거를 들어 그가 앞서 PS(V) 1.17-20⁶⁰⁾에서 니야야의 지각론 비판을 통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하고, 바이췌시까의 지각론 역시 과실이 있

58) NS 5.1.28: “*asya [=upalabdhi samasya(可得-相似)] uttaramkāraṇāntarād api taddharmāpatter apratiṣedhaḥ* ||”

59) ‘네 가지 요소 등’(catuṣṭayādi)이 함의하는 바는 (1) 색(=속성) 또는 운동을 지각하는 경우 아프만·마나스·감관·대상의 접촉, (2) 소리(=속성)를 지각하는 경우 아프만·마나스·감관의 접촉, (3) 아프만의 속성인 즐거움·괴로움 등을 지각하는 경우 아프만과 마나스의 접촉을 의미한다. 참조: Hattori, *op. cit.*, p.146, fn.4.67.

60) PS 1.17-20 [Steinkellner(2005), pp.7-9]: “*indriyārthave nāsti vyapadeśyādisambhavaḥ | sāntaragrahaṇaṃ na syāt prāptaḥ jñāne 'dhikasya ca* || 17 || *adhiṣṭhānād bahir nākṣaṃ na śaktir viṣayeṣaṇe | na sukhādhi prameyaṃ vā mano vāstv indriyāntaram* || 18 || *aniṣedhād upāttaṃ ced anyendriyarutaṃ vrthā | niścite 'rthe phalābhāvo bhinnatvān na viśeṣaṇe* || 19 || *na tatra ca dvayaṃ tac cen na viśeṣye 'pi vartate | ajñānādi na sarvatra nivṛttir nāsatī phalam* || 20 ||”

다고 디그나가는 결론짓는다.

IV. 나오는 말

이상에서 우리는 『쁘라마나삼웃짜야(브릿띠)』 제1 「현량장」 21-24 계송과 자주에서 디그나가의 바이쉐시카 지각론에 대한 비판을 총체적으로 검토해보았다. 사실, 디그나가와 바이쉐시카 간의 가장 큰 차이는 ‘아뜨만’에 대한 입장이다. 불교 철학의 가장 큰 “절대정신”(absolute spirit)은 무아설(無我說)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자신들만의 주장인 아뜨만 부정을 이상의 비판에서 내세우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그의 궁극적 목적은 세간의 언어 행위(lokavyavahāra)와 세상 사람들의 일반 상식(lokaprasiddhi)에 있기 때문이다.

이제 결론적으로 종합해보자. “감관과 대상의 단순 접촉”(indriyārtha sannikarṣa)을 바른 인식수단(pramāṇa)이라고 주장하는 바이쉐시카들의 관점에 의하면, 누군가 “이것은 무엇인가?”라는 의심을 있는 대상을 이해하려는 욕구를 가질 때 그가 대상을 구성하는 제 요소들과 그의 감관들과의 접촉 이후 대상을 완전히 파악할 것이기에 의심이 제거되고 확정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였지만, 그러나 우리는 “아뜨만과 마나스의 접촉” 또한 인식수단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관점에서 인식수단과 인식결과 간에 인식대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모순에 직면함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인식수단이 작용할 때 그 각각의 인식대상으로서 아뜨만은 마나스를 갖고 있고 또한 마나스 역시 아뜨만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인식수단에 의해 발생한 그 결과가 외계대상에 대한 앎(知)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모순된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디그나가 앞서 PS(V) 1.17c-18b에서 니야야 지각론에 대한 고찰(naiyāika pratyakṣa parīkṣāyām)을 통해 논파했던 그 논리(즉 “인식수단은 하나의 대상에 상관되는 반면 인식결과는 또 다른 대상에 상관된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도 바이쉐시카 지각론(vaiśeṣikāṇām pratyakṣam)에 대한 비판에 적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1. 약호 및 원전자료

- NB *Nyāyabindu* of Dharmakīrti. ed. together with NBṬ and Dhṛ by D. Malvania. Patna, 1955.
- NBh *Nyāyabhāṣya* of Vātsyāyana. ed. by G. Jha. Poona Oriental Series 58. Poona, 1939.
- NS *Nyāyasūtra* of Gautama. ed. by P. Shāstrī and H. Shukla. Kashi Sanskrit Series 43. Varanasi: Chowkhamba, 1970 (1st edition 1942).
- NV *Nyāyavārttika* of Uddyotakara. Kashi Sanskrit Series. Benares, 1916./ ed. by Anantalal Thakur. *Nyāyabhāṣyavārttika of Bhāradvāja Uddyotakara* . Delhi: Indian Council of Philosophical Research (Nyāyacaturgranthikā 2), 1997.
- NVTṬ *Nyāyavārttikatātparyāṭikā* of Vācaspatimiśra. Kashi Sanskrit Series 24. Benares, 1925. *Nyāyakaṇikā* of Vācaspatimiśra. as published with *Vidhiviveka* of Mandanamiśra in the Pandit, new series vols. 25-28. Benares, 1904-1906./ ed. by Anantalal Thakur. *Nyāyavārttikatātparyāṭikā of Vācaspatimiśra*. Delhi: Indian Council of Philosophical Re-search, 1996.
- Pāṇ *Aṣṭādhyāyī* of Pāṇini, published in Otto Böhtlingk, *Pāṇini's Grammatik, herausgegeben, übersetzt, erläutert und mit verschiedenen Indices versehen* ...2 vols. Leipzig: Haessel, 1887.
- PBh *Prāśastapādabhāṣya* (or *Padārthadharmasaṃgraha*) of Prāśasthapāda. published together with *Sūkti*, *Setu*, and *Vyomavatī*, Chowkhamba Sanskrit Series. Benares, 1930.
- PS(V) 1 *Dignāga's Pramāṇasamuccaya(vṛtti)*, Chapter 1. P.5072, Ce 93b4-109a1(티벳 역 교정본에 대해서 참조. Hattori 1968: 174-237). 산스끄리트 복원본 Ernst Steinkellner 2005. Published online(http://ikga.oeaw.ac.at/Mat/dignaga_PS_1.pdf).
- *PS(V) 5 *Dignāga's Pramāṇasamuccaya(vṛtti)*, Chapter 5. P.5072, Ce 156a4-169b6. 산스끄리트 복원본 Pind 2015: I .1*-63*.

- PST *Viśālāmalavatī Pramāṇasamuccayaṭīkā* of Jinendrabuddhi. D.4268; P.5766
- PST B *Jinendrabuddhi's Viśālāmalavatī Pramāṇasamuccayaṭīkā, chapter 1. Part I: Critical edition; Part II: Diplomatic edition with a manuscript description* ed. by Anne MacDonald. Ernst Steinkellner *et al.* Beijing and Vienna: China Tibetology Publishing House and Austrian Academy of Sciences Press, 2005.
- VS(V) *Vaiśeṣikasūtra* of Kaṇāda. ed. together with Candrānanda's *Vṛtti*. ed. by Harunaga Isaacson, In *Materials for the Study of the Vaiśeṣika system*. Ph.D. Thesis, University of Leiden, 1995.
- 『阿毘達磨俱舍論』 (『大正藏』29)

2. 2차자료

<단행본류>

- 사이구사 미쓰요시(三枝充惠) 편, 『인식론·논리학』, 심봉섭 역, 서울: 불교시대사, 1995.
- B. K. 마티랄, 『고전인도 논리학』, 박태섭 역, 서울: 고려원, 1993.
- S.C. Chatterjee and D.M. Datta, 『학파로 보는 인도 사상』, 김형준 역, 서울: 예문서원, 1999.
- 三枝充惠 編, 『講座 仏教思想 第二卷 認識論 論理學』, 東京: 理想社, 1974.
- Bimal K. Matilal, *Logic, Language and Reality: An Introduction to Indian Philosophical Studies*. Delhi: Motilal Banarsidass, 1985.
- _____. *PERCEPTION: An Essay on Classical Indian Theories of Knowled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6.
- _____. *The Character of Logic in India*. ed. by Jonardon Ganeri and Heeraman Tiwari. New York: SUNY Press, 1998.
- _____. *The Word and The World: India's Contribution to the Study of Langua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 _____. *Mind, Language and World*. ed. by J. Ganeri.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 _____. *Epistemology, Logic and Grammar in Indian Philosophical Analysis*. ed. by J. Ganeri.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 Ernst Steinkellner, *Early Indian Epistemology and Logic : Fragments from Jinendrabuddhi's*

- Pramāṇasamuccayaṭīkā 1 and 2*. Tokyo: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Buddhist Studies (Studia Philologica Buddhica Monograph Series 35), 2017.
- Harunaga Isaacson, *Materials for the Study of the Vaiśeṣika system*. Ph.D. Thesis, University of Leiden, 1995.
 - Masaaki Hattori, *Dignāga on Perception, being the Pratyakṣapariccheda of Dignāga's Pramāṇasamucchaya from the Sanskrit fragments and the Tibetan version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Harvard Oriental Series 47), 1968.
 - Wilhelm Halbfass, *Tradition and Reflection: Explorations in Indian Thought*.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1.
 - _____. *On Being and What There Is: Classical Vaiśeṣika and the History of Indian Ontology*.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2.

〈논문류〉

- 이지수, 「쉬와디띠야(Sivāditya)의 7범주론(Saptapadārthī)」, 『인도철학』 4, 서울: 인도 철학회, 1994. pp.25-65.
- Brendan S. Gillon, “Pāṇini's Aṣṭādhyāyī and Linguistic Theory,” *Journal of Indian Philosophy* 35, Dordrecht: Kluwer Academic Publication, 2007. pp.445-468.
- George Cardona, “Some Principles of Pāṇini's Grammar,” *Journal of Indian Philosophy* 1, Dordrecht: Kluwer Academic Publication, 1970. pp.40-74.
- Johannes Bronkhorst, “Once Again Vaiśeṣika Sūtra 3.1.13,” *Asiatische Studien / Études Asiatiques* 48(2), 1994. pp.665-681.

Dignāga's Criticism on the Theory of Perception of Vaiśeṣika in *Pramāṇasamuccaya(vṛtti)* 1.21-24

Park, Daeyong (Ven. Dong-kwang)
Lecturer
Dept. of Buddhist Studies, Dongguk University

This article aims to elucidate and examine Dignāga (陳那, ca.480-540)'s criticism on the theory of perception (*pratyakṣa*) of Vaiśeṣika school, which was presented in his *Pramāṇasamuccaya(vṛtti)* [hence PS(V)] 1.21-24, to some extent, referring to his later controversial debates in the commentaries to it. As we know, Dignāga defeated various heretics in fiery debates, and therefore was called a 'bull in debate' (*tarkapuṅgava*) at his time. According to his later work, Dignāga proved his view of perception decisively to refute other contemporary Indian schools' views in his PS(V) Chapter 1 one by one. The Sanskrit critical edition of the PS(V) Chapter 1 which has been newly reconstructed by Ernst Steinkellner (2005), would be divided as follows:

- PS(V) 1.1 - 1.12 : Exposition of the Theory of Perception of Dignāga,
- PS(V) 1.13-1.16 : Criticism on the Definition of Perception of *Vādavidhi*,
- PS(V) 1.17-1.20 : Criticism on the Theory of Perception of Nyāya,
- PS(V) 1.21-1.24 : Criticism on the Theory of Perception of Vaiśeṣika,
- PS(V) 1.25-1.33 : Criticism on the Theory of Perception of Sāṃkhya,
- PS(V) 1.34-1.44 : Criticism on the Theory of Perception of Mīmāṃsaka.

In PS(V) 1.21-24, Dignāga pointed out the contradiction of Vaiśeṣika school's

view of perception in their *Vaiśeṣikasūtra* (hence VS), especially between VS 3.1.15 and VS 10.1.3-4, namely ‘contacts of four factors [=āṭma, indriya, manas, and artha]’ (*catuṣṭaya sannikarṣa*) and ‘a mere manifestation of perceptual object’ (*viṣayālocanamātra*). Furthermore, he vehemently criticized Vaiśeṣika as bad philosophers (*kutārkika*) having a fatuous notion (*abhīmāna*). Accordingly, in this article, I will make a prior examination on the content of Vaiśeṣika’s perception in VS, and then observe closely his criticism against Vaiśeṣika’s perception theory, based on the Sanskrit Reconstruction of PS(V) Chapter 1.

Keywords

Dignāga, Vaiśeṣika, *Pramāṇasamuccaya*(*vṛtti*), *Vaiśeṣikasūtra*, *viṣayālocanamātra*, *pratyakṣa*, *samavāya*

2020년 01월 30일 투고
2020년 03월 13일 심사완료
2020년 03월 23일 게재확정